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2, 203 - 214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도박행동 추세: 신규 가입 후 2년간 베팅 횟수 및 금액 분석[†]

이 충 기	권 선 중 [‡]	이 태 경	김 교 현
경희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국립서울병원	충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중독정신과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LaPlante, Schumann, LaBrie 및 Shaffer(2008)가 수행한 인터넷 도박 연구를 참고하여, 신규 가입 후 약 2년간 국내 합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모집단 수준에서 관찰되는 실제 인터넷 도박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부적응적 도박행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의 틀을 얻고자 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합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규 가입한 28,971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까지(23~28개월)의 베팅 횟수와 금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별 가입 일자부터 참여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한 후 참여 일수와 베팅 횟수 및 액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aPlante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베팅 횟수와 액수가 유의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적응 행동 양상을 보였고, 그 양상은 성별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하였다($r = -.628 \sim -.797$, all $ps < .001$).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인터넷 도박 연구의 방향과 관련 시켜 논의했다.

주요어: 인터넷 도박, 스포츠 베팅, 모집단 추세, 적응 행동, 위험 요인 연구

[†] 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준 스포츠토토온라인(주)에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선중, 대전 유성구 하기동 산14번지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042-828-3300, E-mail: sjkwon@kbtus.ac.kr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멀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도박과 관련된 사행산업 역시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로 현실 공간에 머물러 있는 다양한 사행산업도 결국 가상공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는데, 전 세계 인터넷 도박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2009년 227억 달러, 2010년 245억 달러)은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Christiansen Capital Advisors, 2010).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게 특징이다. 국내 인터넷 도박 시장의 확산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내 불법 인터넷 도박 시장이 이를 입증한다(정찬모, 유지연, 황지연, 2007). 또한 자유무역협정(Watson, Liddell, Moor, & Eshee, 2004) 등에 의해 국외 인터넷 도박 업체의 국내 활동 및 내국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인터넷 도박 시장이 확산될 경우 이용자들이 어떤 반응(행동)을 보일지, 그리고 그 행동은 이용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 도박에 관한 타당성 있는 경험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박이 역기능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당하다. 특히 이용자들이 도박행동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¹⁾ 상태에 이를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다(이홍표, 200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Orford, Sproston, Erens, White, & Mitchell, 2003; Petry, 2005). 개인 수준에서는 증가된 자살 위험성과 우울증, 알코올 남용,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경제적 파산 등이 초래되고, 누적된 부채와 손상된 신뢰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안정해지며, 근로의식 감소와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 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인터넷이 내포한 특수성이 병적 도박 문제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Mark Griffiths와 그의 동료들(Griffiths, 1996, 1999, 2003, 2006; Griffiths & Parke, 2002; Griffiths, Parke, Wood, & Parke, 2006)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접근성과 익명성(문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부재), 전자화폐로 인한 판단보류 현상 등이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병적 도박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Griffiths와 Barnes(2008)는 47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인터넷 도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객장 이용 경험만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병적 도박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내에도 일반 성인 33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탐색한 연구(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가 있다. 비록 불법 인터넷 도박을 다루긴 했지만, 주로 객장을 이용하는 도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병적 도박 문제를 보였는데, 불법 인터넷 도박 경험자의 73.6%가 병적 도박자로 나타났다.

1) 금단과 내성, 갈망 등의 증상을 보이며 도박행동에 대한 만성적인 자기-조절 실패를 보이는 정신장애로,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 APA, 1994)’의 충동조절장애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김교현, 2006a,b 참조).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인터넷 도박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적 증거가 없는 가설적 수준의 주장을 다루고 있거나, 일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 연구에서도 인터넷의 개별 특성을 특정하여 연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인터넷 자체와 독립적인 위험 요인(예: 도박 종류, 다른 도박 경험, 불법성 등)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인터넷 도박은 위험하다’는 추상성 높은 주장은 반복되고 있지만, 그 주장 자체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위험 요인으로 기능하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타당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기존의 추상적 주장을 비판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LaPlante, Schumann, LaBrie 및 Shaffer(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aPlante 등(2008)은, 기존에 수행된 인터넷 도박 연구가 기억에 의존한 단일 시점 자기-보고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전향적(prospective) 연구를 수행했다. 유럽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bwin) 신규가입 이용자 46,339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의 실제 행동 자료(베팅 횟수와 금액)를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박행동 추세를 분석한 결과, 베팅 횟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적응 행동(비확산적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이 내포한 위험 요인이 병적 도박 문제를 증가시키거나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기저에 깔린 “도박행동의 증가 또는 확산”이라는 전제를 반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적어도 모집단 수준에서, 인터넷이 내포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은 도박행동 증가나 확산을 촉진하는 위험 요인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도박행동은 병적 도박 문제에 선행하는 요소다. 물론, 병적 도박자가 된 후 도박행동과 문제의 심각성 간의 관계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도박행동 없이 병적 도박 문제가 발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병적 도박’이라는 비교적 추상성이 높은 개념보다 ‘도박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LaPlante 등(2008)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갖는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익명성 등은 객관적인 특성이다. 그 특성이 ‘위험 요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논리적 추론 이상이 필요하다. 그 ‘위험 요인’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통된 영향을 미친다면, 인터넷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할만 하다. 그러나 그 ‘위험 요인’이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능한다면 인터넷 자체가 독립적 수준의 위험 요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우리는 인터넷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LaPlante 등(2008)의 연구는 유럽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단 한차례 수행된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초로 인터넷 자체가 독립적 수준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Plante 등이 수행한 전향적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 합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베팅)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LaPlante 등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대 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 마다 동일한 도박행동 감소 추세가 관찰되는지를 탐색하여 교차타당화를 시도했다.

방 법

참여자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www.betman.co.kr)에 가입한 29,035명 중에서 한 번도 베팅을 해보지 않았거나 베팅을 했더라도 진산 오류로 금액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64명을 제외한 28,971명[남성 25,321명(87.4%), 여성 3,650명(12.6%)/ 평균 연령 32.48세(표준편차 8.07), 연령대: 20대 12,616명(43.5%)/ 30대 11,974명(41.3%)/ 40대 3,055명(10.5%)/ 50대 이상 1,326명(4.6%)]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1월까지의 구매이력(베팅 횟수와 금액)을 갖춘 스포츠토토온라인 이용객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포츠토토온라인 측으로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최소 23개월(약 690일: 07년 12월에 가입)부터 최대 28개월(약 840일: 07년 8월에 가입)까지의 구매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가입 일자부터 참여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했다.

분석

먼저 전체 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 후 시간 변화에 따른 베팅 횟수 및 금액 총합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후, 참여 일수와 베팅 횟수 및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전체 집단에서 얻어진 양상이 성별 및 연령대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결과의 교차 타당화를 시도했다.

표 1. 이용 일수와 베팅 횟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 N=25,321	성별		연령대			
		남성 N=25,321	여성 N=3,650	20대 N=12,616	30대 N=11,974	40대 N=3,055	50대 이상 N=1,326
일수-횟수	-.769***	-.772***	-.705***	-.738***	-.782***	-.707***	-.62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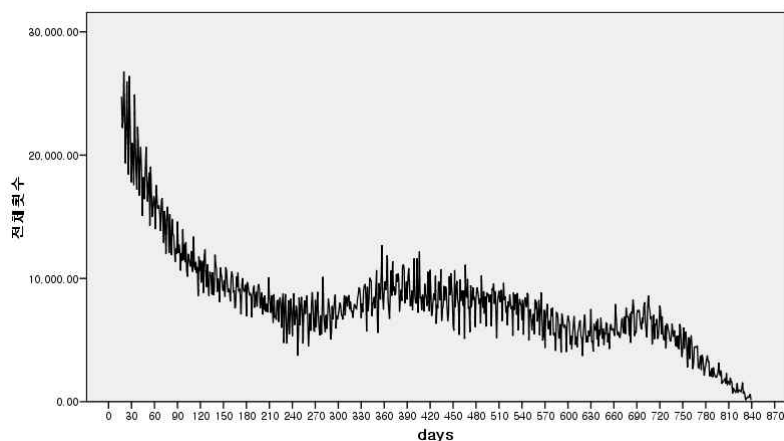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이용객의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횟수 추세 그래프

결 과

베팅 횟수의 변화 추세 분석

먼저 이용객들의 베팅 횟수 변화 추세를 분석했다. 이용 일수와 베팅 횟수 간의 상관 분석 결

과는 표 1에 제시했고, 변화 추세에 대한 결과는 그림 1~3 사이에 그래프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LaPlante 등(2008)의 결과와 유사하게, 시간에 따라 이용자들의 베팅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r=-.628\sim-.782$, $all\ ps<.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120일까지는 급격하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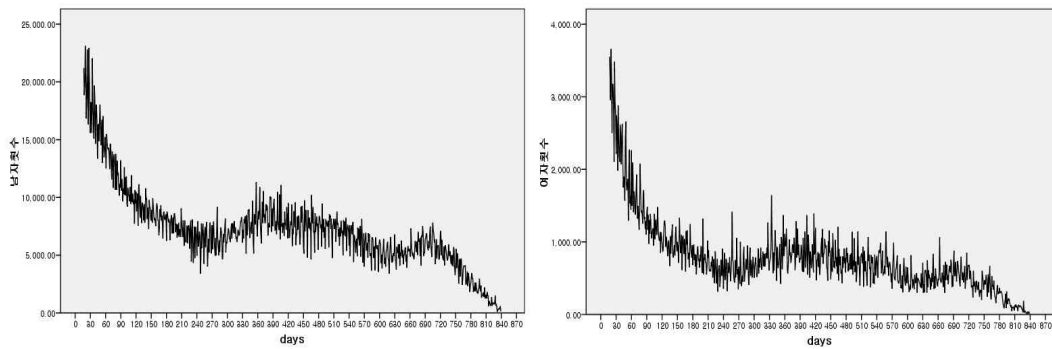


그림 2. 남성과 여성의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횟수 추세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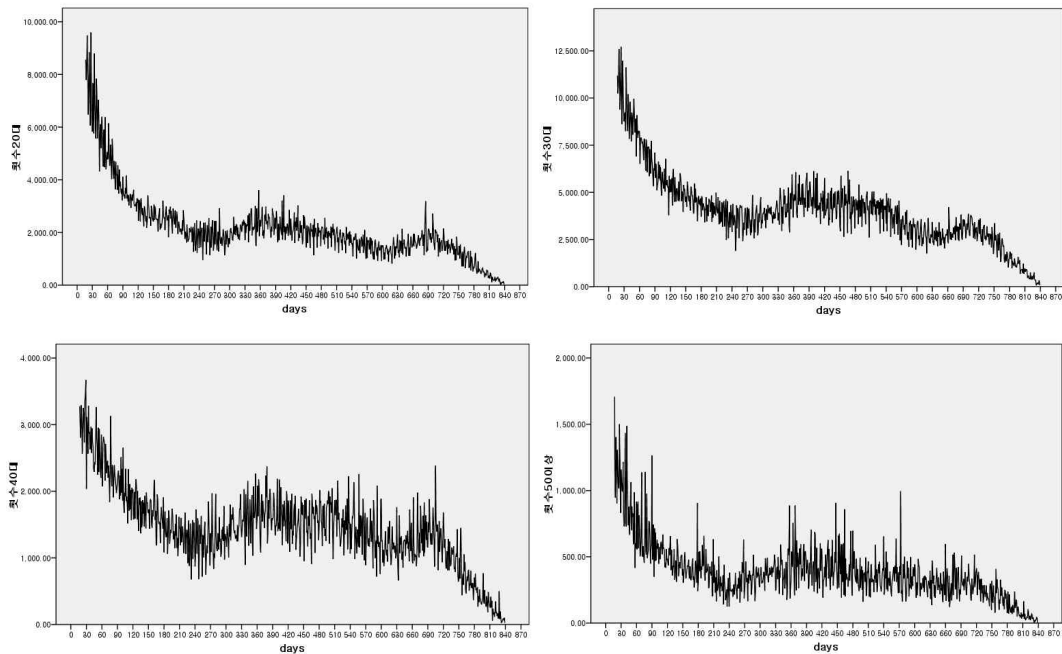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횟수 추세 그래프

하여 약 300일 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 양상은 가입 후 2년 시점에서 한 번 더 반복됐다. 이는 가입자들이 참여했던 해당 스포츠 시즌이 주기적(1년 기준)으로 찾아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²⁾

베팅 금액의 변화 추세 분석

다음으로 이용객들의 베팅 금액의 변화 추세를

분석했다. 이용 일수와 베팅 금액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했고, 변화 추세에 대한 결과는 그림 4~6 사이에 그래프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팅 횟수 결과와 유사하게, 시간에 따라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이 유의하게 감소($r=-.723\sim-.797$, all $ps<.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팅 횟수와 금액 간에는 상관이 높아(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된다. 금액 역시 200일까지 감소하여 약 300일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 양상

표 2. 이용 일수와 베팅 금액 간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 N=25,321	성별		연령대			
		남성 N=25,321	여성 N=3,650	20대 N=12,616	30대 N=11,974	40대 N=3,055	50대 이상 N=1,326
일수-금액	-.769***	-.752***	-.797***	-.739***	-.768***	-.767***	-.723***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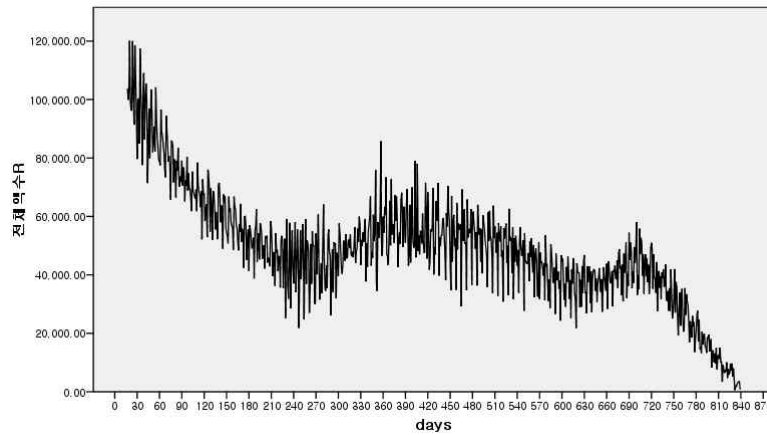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이용객의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금액 추세 그래프(단위: 천원)

2) 각 집단의 사례수 차이로 세로축의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관찰되는 감소폭이나 진폭을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 함.

은 가입 후 2년 시점에서 한 번 더 반복됐다. 이 나타났다.
러한 추세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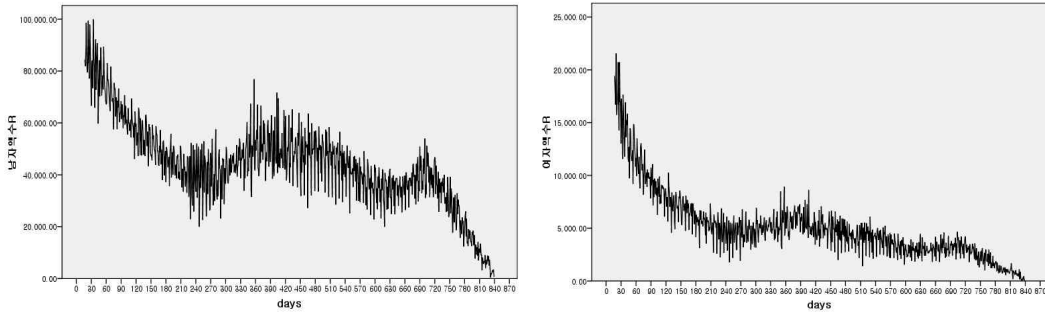


그림 5. 남성과 여성의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금액 추세 그래프(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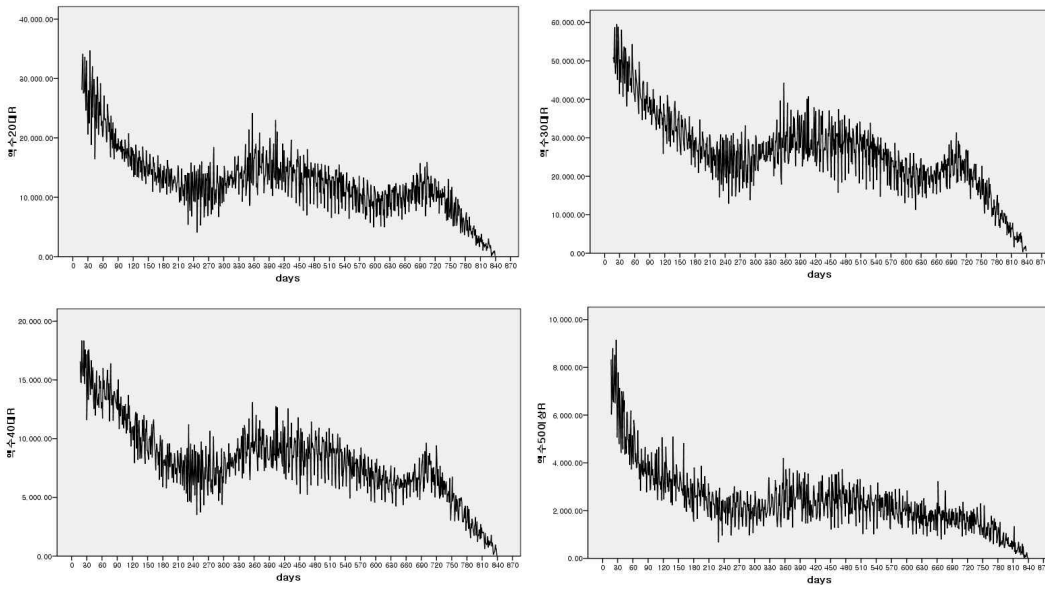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별 이용 일수에 따른 베팅 금액 추세 그래프(단위: 천원)

표 3. 베팅 횟수와 금액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전체 N=25,321	성별		연령대			
		남성 N=25,321	여성 N=3,650	20대 N=12,616	30대 N=11,974	40대 N=3,055	50대 이상 N=1,326
횟수-금액	.965***	.955***	.947***	.932***	.956***	.939***	.884***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LaPlante 등(2008)이 수행한 전향적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후 도박행동 변화 추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LaPlante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에게서도 도박행동의 증가나 유지, 혹은 확산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신규 가입 후 1년이 되기 전에 도박행동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적응 행동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낮은 수준의 여성 참여 비율(12.6%)은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적 편견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여성들의 도박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상식적 수준의 기존 예측을 반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참여자들이 신규 이용객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자체가 도박행동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대부분의 도박 참여가 그렇듯 호기심에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그 추세를 분석하면, '객장 이용 도박행동'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수준에서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지적한 기존 주장들의 전제에는 '객장 이용 도박행동'과는 달리 인터넷의 독립적인 효과에 의해 호기심에 참여한 사람들도 도박행동이 유지되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도박행동은 더욱 확산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그와 같은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의 객관적 특성(접근성과 익명성 등)이 병적 도박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병적 도박에 취약한 개인이 인터넷 도박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익명성이 낮은 객장 기반 도박을 이용할 때 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위험 요인으로 기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구체화된 정보만이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도박은 위험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이나 진술은 연구자 집단에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구체적 수준의 연구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먼저 인터넷 도박을 선호하는 혹은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과 인터넷 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국내 합법 인터넷 도박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87.4%)가 남성이고, 80% 이상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고, 어떤 형태의 도박 경험이 있는지,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의 조합으로, 시작 단계에서 도박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특정 집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없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40대 초반 남성들 중에서 과거

도박 경험이 있고 돈을 따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집단의 도박행동 추세를 분석했을 때, 해당 집단의 도박행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면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집단의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정기적인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 누적된 도박행동 자료를 참고하여 행동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집단을 선별하고 그 집단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조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터넷과 독립적인 위험 요인을 통제 후, 인터넷 도박행동과 도박 문제가 용량 반응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특성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부적응적 결과에는 개인의 취약성이 관여한다. 따라서 도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성(예, 도박동기, 비합리적 도박신념 등)과 간접적인 특성(예, 충동성, 감각추구 성향 등)을 구분하여 도박 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러한 특성이 인터넷이라는 맥락을 선택하게 했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강화됐는지, 혹은 둘 간의 관계는 독립적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병적 도박 문제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김교현, 권선중 및 김세진(인쇄중)은 가용성과 접근성, 수용성, 가상현실성, 익명성, 고립성, 무국경성 등을 인터넷 도박의 일차적 특성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터넷 도박의 종류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박행동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환주기가 긴 도박의 경우 접근성은 위험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수용성이나 익명성 등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병적 도박 문제가 발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조합 속에서 인터넷의 개별 특성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합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베팅) 사이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도박에 관한 일부 연구자들(Clarke & Dempsey, 2001; Parke & Griffiths, 2004; Watson et al., 2004)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의 합법화는 베팅 금액과 횟수의 제한, 청소년 접근금지를 위한 등록절차 강화, 크레딧 카드 인증절차 강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보 제공, 공정한 게임물과 배당률 등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역기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 인터넷 도박과 불법 인터넷 도박 간 비교분석은 최근 인터넷 도박의 확대에 대해 금지와 허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문제는 역학(epidemiology)의 관점이나 공중건강(public health)의 틀(Korn, Gibbins, & Azmier, 2003; Korn & Shaffer, 1999)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공중건강의 핵심 영역은 '대상'과 '행위자' 및 '환경'인데, 인터넷은 도박행동이 출현하고 도박 문제가 발달하는 환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통합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이론적 틀로 공중건강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역학은 인간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빈도와 분포, 그리고 그러한 분포를 결정 짓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분야다. 역학의 관점을

따른다면, 공중건강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영역 간의 조합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병적 도박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박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하버드의대 중독센터의 Howard J. Shaffer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럽 인터넷 도박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제 행동자료와 전향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도 그와 같은 산·학 협력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터넷 도박에 관한 건강심리학 연구가 역기능이나 부작용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도박이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건전한 여가나 놀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기능과 적응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충기와 이봉구(2009)의 연구에서는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열정척도(gambling passion scal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값(7점 척도)을 기준으로 할 때 강박적 열정은 2.63, 조화로운 열정은 4.13로 나타나 인터넷 도박을 통한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1-20.

김교현 (2006a).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63-105.

김교현 (2006b).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243-274.

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인쇄중). 인터넷 도박의 과제와 쟁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이충기, 이봉구 (2009). 인터넷 갬블러에 대한 갬블링열정척도(GPS)의 적용. 관광학연구, 33, 53-72.

이홍표 (2003).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찬모, 유지연, 황지연 (2007). KISDI 이슈리포트: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rd ed.)*. Washington, DC: APA.

Christiansen Capital Advisors (2010). *Global internet gambling revenue estimates and projections (2001 -2010)*. Available at http://www.cca-i.com/Primary%20Navigation/Online%20Data%20Store/internet_gambling_data.htm (accessed April 12, 2010).

Clarke, R., & Dempsey, G. (2001). The feasibility of regulating gambling on the Internet.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2, 125-132.

Griffiths, M. D. (1996). Gambling on the internet: A brief not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 471 - 474.

Griffiths, M. D. (1999). Gambling technologies: Prospects for problem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 265 - 283.

Griffiths, M. D. (2003). Internet gambling: Issue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6, 557-568.

- Griffiths, M. D. (2006). Internet gambling: What can looking at the past tell us about the future? *Casino and Gaming International*, 4, 37 - 43.
- Griffiths, M. D., & Barnes, A. (2008). Internet gambling: An online empirical study among student gamb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6, 194-204.
- Griffiths, M. D., & Parke, J. (2002). The social impact of Internet gambling.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0, 312 - 320.
- Griffiths, M. D., Parke, A., Wood, R. T. A., & Parke, J. (2006). Internet gambling: An overview of psychosocial impacts. *Gaming Research and Review Journal*, 27, 27 - 39.
- Korn, D. A., Gibbins, R., & Azmier, J. (2003). Framing public policy towards a public health paradigm for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 235-256.
- Korn, D. A., & Shaffer, H. J. (1999). Gambling and the health of public: Adopt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 289-365.
- LaPlante, D. A., Schumann, A., LaBrie, R. A., & Shaffer, H. J. (2008). Population trends in internet sports gambl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2399-2414.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Orford, J., Sproston, K., Erens, B., White, C., & Mitchell, L. (2003).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in Britain*. New York: Brunner-Routledge.
- Petry, N. M. (2005). *Pathological gambling: Etiology, comorbidity and treatm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e, A., & Griffiths, M. D. (2004). Why internet gambling prohibition will ultimately fail? *Gaming Law Review*, 8, 295-299.
- Watson, S., Liddell Jr., P., Moor, R. S., & Eshee Jr., W. D. (2004). The legalization of internet gambling: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3, 209-213.

원고접수일: 2010년 5월 20일

게재결정일: 2010년 6월 15일

Population Trends in Gambling Behavior of Legalized Internet Gamblers: Analysis of Betting Amount and Number of Bets for 2 Years after a New Membership

Choong-Ki Lee Sun-Jung Kwon Tae Kyung Lee Kyo-Heon Kim
Dept. of Tourism Management,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ept. of Addiction Psychiatry, Dept. of Psychology,
Kyung Hee Universit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National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opulation trends in legalized internet gambling based on the study of LaPlante, Schumann, LaBrie, and Shaffer(2008). This study attempted to gain an elaborate understanding of maladaptive gambling behavior based on actual behavior patterns observed directly from the population of Internet gamblers. Data was collected from 28,971 members who had first registered on a legal Internet gambling(sports betting) site between August and December, 2007. The number of bets and betting amounts until November, 2009 (total 23~28 months) were collected. This study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umber of participating days, number of bets, and betting amounts after computing individual days of gambling participation from activation of each initial membe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consistent with those reported by LaPlante et al.(2008) in that the number of bets and betting amounts of gamblers showed significantly decreasing patterns of adaptive behavior and the patterns were similar regardless of gender and age($r=-.628-.797$, all $ps<.001$). Finally, we discussed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associated with future direction on the study of Internet gambling.

Keywords: Internet gambling, sports betting, population trend, adaptive behavior, research of risk factors